



심화·이기선

심신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식사

청정한 환경·새음식 문화 창출의 지름길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4

바루공양

현대인은 거게 매식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아침 식사마저 매식하는 사람이 있다. 새벽부터 근무하는 회사에 있는가 하면 공장 학원 학교에 일찍 나가는 사람은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사람의 식문화는 하루 3식이 거의 정착되어 있기에 간단한 요거나 입가심 아니면 뜨거운 열차나 커피라도 마셔야만 하루 일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용기가 종이 컵이 아니면 은박지 지함이나 비닐봉지가 전부이다. 음식을 먹고난 다음 그 뒤처리도 여간 간편하게 진행되지만 쓰레기의 적체현상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 전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공할 만하다. 전국 곳곳에는 쓰레기 문제로 자연이 황폐하고 고갈되고 국토가 척박하고 병들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할 때 나오는 폐품처리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거되고 재활되지 않으면 안된다.

색식과 자연훼손

여기에 대하여 불교적 대처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용기의 활용성이 과학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바루공양이 제일 상책이다. 스님이 산중 대가람에서 공양할 때는 언제나 바루공양을 한다. 자신의 바루에 적당한 음식을 배식하여 그 음식을 남김없이 음양하는 것이다. 김치 한 오레기도 우겨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맑고 깨끗한 마루 그곳으로 씻어내고 그 씻은 물 마저 마셔버리는 철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찌꺼기나 국물이 있을 수 없다.

참으로 맑고 향기로운 식사법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성정각보리 하였을 때 그 곳을

무로서 공양을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하다. 이것은 법기장엄(法器莊嚴)의 세계가 구현되었음을 상징한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보양하기 위하여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 사바세계의 광명체가 되고 정대성이 되게 하는 장엄법기인 것이다.

지금 우리를 주변에서 만연되는 일들 즉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일들은 바로 육체에 안 음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치이다. 원래 인간은 法食을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세월 색식을 하는 습관이 누적되어 먹이사슬에 대한 장엄의식을 내면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커다란 병폐가 되어 지금은 자연이나 산해대지 초목 어조 동물들 모두를 질식시키는 재앙의 원죄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식단법이나 음다법을 바를 때가 왔다. 음공법이 전환되고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집안에서 일상에서 하는 식사도 법식으로 대하는 바루법을 되살려 내어야 한다. 사찰에서 배운 저 좋은 청정 공양법회를 일주문 밖으로 나오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까. 모든 불자들은 이것을 각성하여야 한다. 잠깐 한 때 좋은 것이 있다면 오래 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지금이 좋으면 나중도 좋아 한다. 처음은 할 수 있지만 향상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낙안한 것이다. 정법수지의 서원이 쇠미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구불변하여야 하고 정법구주(正法久住)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기장엄의 부처님 법의식이 사회화·문화화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청정한 환경으로, 아니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출하는 식단법이 될 것이다.

집에서도 바루법을

이것이 커다란 병폐가 되어 지금은 자연이나 산해대지 초목 어조 동물들 모두를 질식시키는 재앙의 원죄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식단법이나 음다법을 바를 때가 왔다. 음공법이 전환되고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집안에서 일상에서 하는 식사도 법식으로 대하는 바루법을 되살려 내어야 한다. 사찰에서 배운 저 좋은 청정 공양법회를 일주문 밖으로 나오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까. 모든 불자들은 이것을 각성하여야 한다. 잠깐 한 때 좋은 것이 있다면 오래 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지금이 좋으면 나중도 좋아 한다. 처음은 할 수 있지만 향상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낙안한 것이다. 정법수지의 서원이 쇠미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구불변하여야 하고 정법구주(正法久住)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기장엄의 부처님 법의식이 사회화·문화화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청정한 환경으로, 아니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출하는 식단법이 될 것이다.

“스님역 말으면 나도 스님”

명륜동 '극락전연구회' 사무실. 연극에 쏟는 전무송씨의 열정이 배어있는 곳이다. 인사를 나누고 그는 담배를 권했다. 그리고 최근 아는 스님과 동행해 늦가을의 백암사와 선운사를 무작정 다녀왔다는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올해 서울에진 연극과에 입학한 그의 아들도 연극을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드라마테이터를 놀이터 삼아 자라는 딸도 연극을 한다. 지식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극을 한다는 것에 대해 그는 무심하다. “글쎄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불교에서는 우리를 삼을 종종 꿈으로 비유한다. 망상과 헛된 집착,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을 끊으라는 경책의 뜻으로 꿈을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삼의 무상함 곧 제법무아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꿈 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아직도 불교공부보다는 사람공부에 더 심취해 있다. 설익은 불교인보다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한60쯤 되어서야 욕심도 집착도 놓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또는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름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산문박의

배우 전 무 송

그렇다면 ‘꿈’을 ‘연극’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 세상 모든 것은/연극과 같으니/마땅히 이와 같이...”

30여년을 줄곧 무대에 서 온 전무송. 배우로서의 그의 세상살이는 어떤 모습일까.

“연극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살면서 부딪히는 갈등과 바람과 좌절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연극에서는 무수한 삶을 만나는데 배우가 그들 삶의 승려 하나까지 어떻게 드러내어 관객에게 보여주는 나가 문제죠.”

불교에서는 느끼지 못한다면 행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다. 연극도 마찬가지이다. 전무송씨는 영화 <원호대사>를 회상하며 말을 잇는다.

“원호스님이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은 장면인데, 이 장면을 첫날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에게 말했죠.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인데 배우가 원호스님의 구도열정과 그 감정을 표현해낼 준비도 없이 어떻게 촬영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몇 일 미루 촬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작품을 ‘아름의 산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비껴가거나 틀러치지는 않는다. 그것을

60여편의 연극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가장 어려웠던 배역은 영화 <만다라>의 지산스님역. 가장 힘들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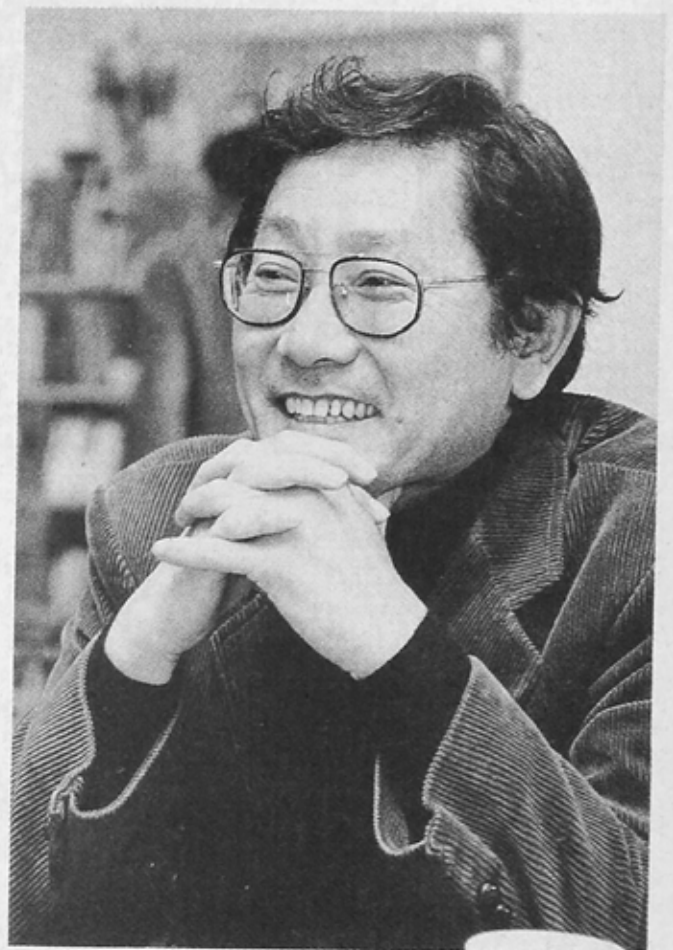
“연기 30년에 사람공부는 좀 했지요”

그렇기에 너무나 아팠기 때문일까. 예술을 통해 외로이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의 모습, 아니 구도의 열정과 좌절에 괴로워했던 지산스님의 영혼으로 다가온다.

촬영 때문에 자리를 뜰 시간이다. 그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sbs 12부작 미니시리즈 ‘우리들의 날’에서 그는 사람들의 끌어버린 가슴을 향해 무언가를 부르짖는 주정명이 시인 역을 맡았다.

어름이 깔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건너편 야외촬영장.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굳이 불교와 자기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사람이 셋이 셋이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 사람냄새가 나야지 향내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연극이며, 이러한 이치를 어기지 않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곧 불



교 아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그가 참여하는 신형모임인 영산회에 가서도 백발백중을 드리지만 불경은 무

고 아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그가 참여하는 신형모임인 영산회에 가서도 백발백중을 드리지만 불경은 무

손 소린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짙을 올릴 때는 ‘티끌 같은 이 몸’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불교를 꼭 불교라는 언설로 표현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연기, 그러한 배우하기를 추구한다. 따라서 아직은 불교공부보다는 사람공부에 더 심취해 있다. 설익은 불교인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열치가기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 60쯤이나 되어서야 욕심도 집착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무송은 분명 열치는 아니다. 한 작품 끝내고나면 그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잊는다. 다만 배역을 맡았던 인생의 참전물만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잊지 못하는 대사가

의 아름답게 빠져 나오는 말. “백학간두에서 봐. 그리고 거기서 한발 더 내디뎌. 부디 견성하거든 나도 제도해주게.”

영화 <만다라>에서 괴악한 지산이 만경중에 법운에게 불속 건넨 말로, <무문관>에 나오는 화두이다. 일찍이 중국의 석상선사가 장사선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백 학 높이 장대 끝에 어떻게 하면 더 오를 수 있었는가.” 장사선사가 대답했다.

“백 학의 장대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사 경지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한 발은 없다. 백학의 장대 끝에 서서 반드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방세계에 온통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다면 전무송은 어디에서 있는가. 그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연극이며 영화, 이미 시방세계가 아닐까. <정성운 기자>

山寺의 향기

불자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바로 그 비디오!!
사찰의 모든 것이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사찰이란 어떤 곳인가.
일주문·천왕문·금강문 등에는 무슨 뜻이 있고,
대웅전·적광전·극락전은 어떤 법당인가.
또 사찰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모셔야 하나.
오랜 동안 불교를 신봉해온 신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찰의 모든 것을 한 편의 비디오로 쉽게 배운다.

주요 수록내용

-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 산문의 의미
- 법고, 육아, 운판, 법종 등 주요 법기
-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 사원 내 주요 전각과 불·보살상
-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 등

정가 : 20,000원

1,600년 전 민족 불교문화의 절정 향기가
배어난 영상과 풍미한 해설.
김영동 명상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로
어울어진 한편의 감동시!

대정프로덕션
서울·중구 을지로 3가 302-2 승관BD 601호
구입문의 : ☎ (02) 275-9459 · 265-9458